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개막식이 7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11개국 23명(해외 10개국 11명, 국내 12명)과 지역작가 30여 명이 참여해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역사적 수난과 상처 딛고 문학으로 평화 노래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개막

“이제 상처에서 평화로 나아가 때가 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는 한반도의 상처에서 길어 올린 평화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의 평화도 노래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아시아가 각자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표출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문학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역사적 수난과 상처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경험을 문학페스티벌로 승화하는 대체전의 막이 올랐다. 아시아 작가들의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7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막식을 열고 9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과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11개국 23명(해외 10개국 11명, 국내 12명)과 지역작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7일 개막식에는 국내외 초청작가, 지역작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백낙청 조직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아시아문학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양성에 기반한 아시아문학인의 연대를 추구하는 한편

11개국 23명, 지역작가 30명 참여 아시아문화전당서 내일까지 열려 창작무용·ACC송 등 개막 축하공연 문학낭송제·작가 팟캐스트도

각자 자신이 처한 현장에서 민주·평화·인권을 중시하는 문학활동을 해온 인사들을 모셨다”며 “세계의 평화를 아시아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현장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 축하공연은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작가 담딘수렌 우리양카이와 시 ‘증언’을 모티브로 한 창작무용이 무대에 올려졌다. 안애순 아시아무용단 예술감독의 ‘시간의 흔적’이 펼쳐져 갈채를 받았다. 이어 가수 휘성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ACC송 ‘하나가 되어’를 열창했다.

오후 6시부터는 대인시장에서 아시아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 시민들이 함께하는 ‘아시아 문화난장’이 펼쳐졌다. ‘아시아 별들의 밤’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작가들과 시민들은 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8일에는 작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작품을 낭송하

는 ‘아시아 문학낭송제’(오후 7시)가 열릴 예정이다. 예술극장 극장2에서 국내외 초청 작가들이 시와 산문을 낭송한다. 이에 앞서 오후 3시에는 전년대 인문대 1호관 113호에서 초청작가 연례카와와 대화 예정돼 있다. 이주노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이미란 소설가와 연례카가 대담을 나눈다. 중국 인민대학 문화원 교수인 연례카는 제1, 2회 루신문학상과 제3회 라오서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대표 작가로 ‘중국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9일에는 ‘아시아 작가 팟캐스트’(오전 10시)가 ACC라이브러리파크에서 있을 예정이다. 중국 소설가 연례카와 소설가 심운경, 미안바 시인 틱사 니와 이영진 시인, 몽골 시인이자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담딘수렌 우리양카이와 이영산 작가가 대담을 나눈다. 오후 2시에는 ‘작가 대담-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가 펼쳐진다. 나희덕 시인의 사회를 보고 문태준 시인이 진행하며 메타프 소설가 바오인, 팔레스타인 소설가 아다니아 쉬블리 등이 참여한다.

오후 6시에는 아시아문학상 시상식과 2018 광주 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행사가 막을 내린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601-40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모두는 평화의 생존에 책임 있다”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주제 평화포럼 열려

“오늘날의 평화는 사막에 고립된 가없는 부족과 같다. 우리는 평화의 생존을 위해 물과 대추야자 열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생존에 책임을 지고 있다.”

개막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이어진 ‘평화포럼’에서는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를 주제로 2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인과 오카나와의 사키야마 다미 소설가가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고, 이어 방글라데시 시인 아크타르 작가와 인도계 영국 작가 프리

아바실이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를 발제했다.

먼저,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인은 “진정으로 평화는 포위당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연유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우리의 사명은 평화를 수호하고 계속해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평화가 이 내 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우리는 평화의 노래를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키야마 다미 작가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적인 발여졌던 곳으로, 일반인을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운데 4명 중 1명이 사망한 ‘비극의 섬’이었다”며 “미력

하지만 힘을 이어가고 축적해 간다면 차별의식이나 대국 지향이 빚어내는 전쟁과 폭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널로는 문순태 소설가와 오수연 소설가가 나서, 평화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하는 당위를 역설했다. 문 작가는 “올해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 결실로 한반도 평화변역을 이루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발걸음과 함께, 5월 광주정신이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안고 있어 의미가 크다”가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방글라데시 시인 아크타르 작가와 인도계 영국 작가 프리아바실이 세상에 만연한 온갖 차별에 대해 지적하고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고 역설했다. 패널로는 이경자 소설가와 신용목 시인이 참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 가야금 선율과 함께

광주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10일 윤림동 전통문화관

가을의 끝자락을 깊은 가야금 가락으로 배운해 보는 건 어떨까.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32회 소리의 등불 정기연주회-현의 어울림’을 연다. 지난 1989년 창단된 가야금 합주단 ‘광주가야금연주단’은 매년 다른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 가야금 병창과 창작곡으로 채워진다.

먼저 가야금양상물 ‘이랑’의 음반에 수록된 ‘행복한 가야금’을 이정숙, 김성이, 김한아의 연주로 만난다. 이어 북한 25현 가야금곡 중의 하나인 ‘황금산의 백도라지 3중주’가 이어지고 경기민요 ‘오봉산타령’을 연주한다. 또 대표 민요 ‘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엮어 만든 ‘아리랑날



김한아

박효정

이’를 박효정 등이 참여한 가야금 4중주로 무대에 올린다. ‘홍보가’ 중 ‘박타령’을 배유경·전운정의 가야금병창과 신지수의 장구 연주로 듣고 ‘25현 가야금을 위한 뱃노래 2중주’로 무대를 맺는다.

초대 단장인 성애순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고 김한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차석단원이 연출했다. 무료 관람. 문의 010-2992-529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수일과 심순애’ 창작음악극으로 만난다

라인클래식 오늘·10일 유달예술타운

신곡 ‘이수일과 심순애’를 창작음악극으로 다시 만난다. 공연단체 ‘라인클래식’은 8일 오후 7시 30분, 10일 오후 3시·7시 30분 목포시 유달예술타운에서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을 연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의 공연예술작품제작사업 지원을 받은 이 작품은 이수일과 심순애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오페라 아리아와 변사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꾸민다.

1900년대 초 개화기에 순백의 맹세와 재물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일과 순애의 사랑,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풀어냈다. 음악과 드라마가 있는 이른바 ‘뽕페라’라 장르를 정의한 이 작품은 최성욱이 작곡을 맡고 지휘봉도 잡았다. 또 손재오가 연출을 맡고 박선미가 대본 작업을 했다.

변사 문관수가 극을 이끌어가고 테너 유기수가 이수일을, 소프라노 정별남이 심순애를 연기한



창작음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연습 모습.

다. 하수미, 김용원, 김원중, 허주은, 정희연(피아노), 김병안(엘렉트) 등이 출연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3088-998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 고문헌 호남진흥원 기탁

내일 호남 문헌세가 학술대회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은 호남을 대표하는 문헌세가(文獻世家)다. 이번에 문중은 가문에서 대대로 보존해온 자료를 호남한국학 연구 발전을 위해 호남진흥원에 기탁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소촌동 공무원교육원 1층(세미나실)에서 ‘2018 호남 문헌세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첫 대상은 고문헌을 기탁한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이다.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 기탁고문헌 자료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된 첫 번째 문헌세가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준서, 기형간씨가

기탁한 고문헌은 1448년(세종)에 발급받은 교지를 비롯해 다양한 고문서와 고서 등 2700여 점에 달한다.

학술대회는 김기림(조선대)의 ‘백석헌집’으로 본 기양연의 문헌세계를 시작으로 문헌주(순천대)의 ‘경향간의 서신 교환과 그 목적-기윤진·기양연 부자의 간찰을 통해’, 김희태(전남 문화재위원회)의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 고문서의 현황과 가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성환 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원의 사회로 김진욱(조선대), 권수용(한국학호남진흥원),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2-603-96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